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COMPANY RESEARCH / No.08

코스피 005930 · 메모리·이익 지속성·자본배분

삼성전자

사상 최대 잠정실적과 반도체 주가 조정

메모리 수익성·현금 전환·자본배분으로
검증하는 이익 지속성

195조원

3Q26 잠정 매출 [1]

107.4조원

3Q26 잠정 영업이익 [1]

55.1%

잠정 영업이익률 · 계산 [1]

기록적인 이익은 출발점이다.
지속성은 가격·원가·현금에서 드러난다.

잠정실적과 사업부 손익을 분리하고, 기술의 진전이 반복 가능한 현금과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분석한다.



01 / RESEARCH VIEW

실적의 방향과 이익률의 지속성을 분리한다

TradeLens 판단 | 메모리의 상업적 개선은 유효하다. 현재 이익률의 연속성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핵심 결론

3분기 연결 잠정실적은 이익 확대를 확인시켰다. 그러나 과거 분기의 이익 규모와 향후 가격결정력·현금창출력은 다른 질문이다. 기술 경쟁력과 수급 호황의 효과를 분리해야 지속 가능한 이익을 식별할 수 있다. [1]

01

무슨 변화인가

잠정이익은 확대됐지만 주가는 크게 조정됐다. 실적과 시장가격을 같은 시간축의 지표로 읽지 않는다.

02

왜 중요한가

높은 메모리 이익에 전사 수익이 집중되면 단가·수율·제품 구성의 작은 변화도 중요해진다.

03

누구에게 효과가 생기나

부품의 가격결정력, 완제품의 원가 부담, 주주의 현금 수취는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

04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세 실적의 사업부 손익, 재고·채권, 투자 이후 현금과 환원 집행을 함께 확인한다.

긍정적 판단의 근거는 상용 제품과 회사가 보고한 이익 확대다. 경계할 부분은 이를 정상 이익의 고정값으로 연장하는 해석이다. 주가 하락을 수요 붕괴의 증거로 삼는 해석도 같은 이유로 경계한다.

독자에게 남길 기준

기술 경쟁력 → 양산 경제성 → 현금 전환 → 자본 회수.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한 숫자보다 이 연결의 지속성을 본다.



02 / PRELIMINARY EARNINGS

잠정이익은 늘었다. 공개 범위는 제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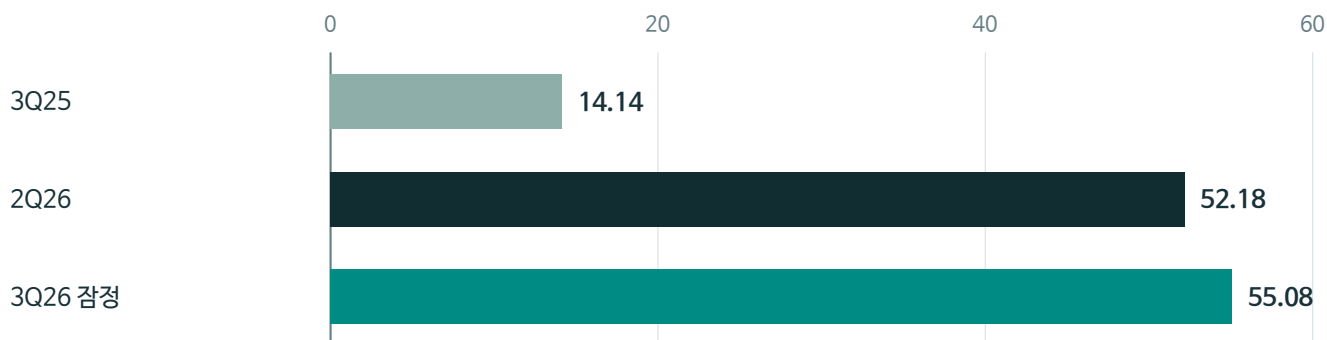
3Q26은 연결 잠정치다. 사업부별 이익과 현금흐름을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연결 기준 · 조원	3Q25	2Q26	3Q26 잠정
매출	86.06	171.50	195.00
영업이익	12.17	89.49	107.40
영업이익률 ¹	14.14%	52.18%	55.08%

출처: 삼성전자 [1] [2]. ¹ 영업이익 ÷ 매출 × 100, TradeLens 계산. 뒤의 2분기 사업부·현금자료는 회사 IR의 별도 표시 정밀도를 유지한다.

동일 분모로 비교한 연결 영업이익률

% · 잠정치 포함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계산한 이익률은 전분기보다 약 2.90%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 산술만으로 HBM의 단가·판매량·마진 또는 파운드리 손익을 분해할 수는 없다. 순이익이나 주당순이익, 3분기 현금흐름의 대용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익의 규모와 원인을 구분

실적 증가는 관측된 사실이다. 어느 제품에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이익이 다음 분기에도 유지되는지는 상세 손익과 공급 조건으로 판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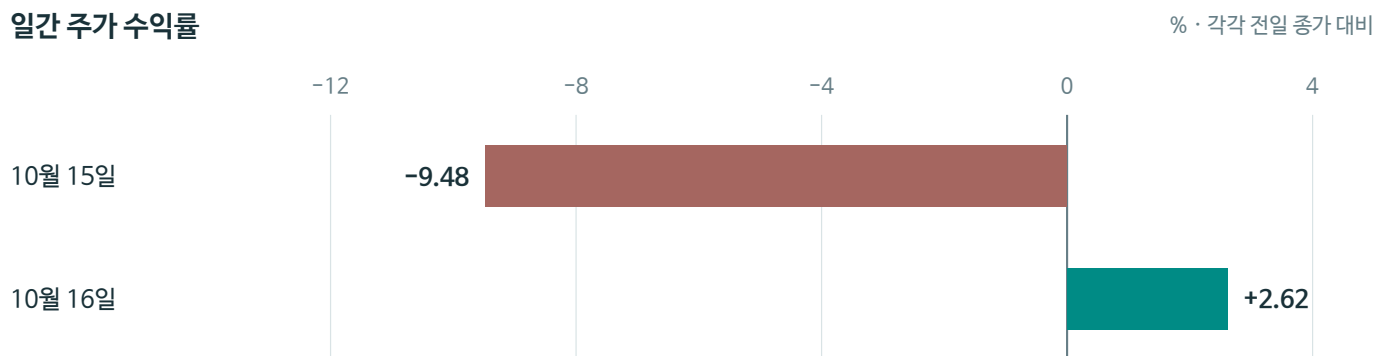
03 / MARKET REPRICING

실적 발표와 주가 조정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 2026년 10월 16일 정규장까지의 시장 사실과 사업 판단을 분리한다.

일정	관측·예정 사항	분석상 구분
10월 8일	3분기 잠정실적 공표 [1]	종료된 분기의 연결 추정치
10월 15일	주가 -9.48% [12]	당일 시장가격의 재평가
10월 16일	215,500원, +2.62% [12]	반등과 사업 정상화는 별개
10월 29일	10:00 KST 콘퍼런스콜 [11]	사업별 손익·전망의 다음 확인점

일간 주가 수익률



출처: 시장 보도 [12]. 정규장 기준, 배당 미반영. 서로 다른 전일 가격을 분모로 하므로 두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16일 외국인 현물 순매수는 약 1,820억원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하루의 수급 전환은 향후 주문이나 고객의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주가에는 기대이익·할인율·위험회피·포지션 조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며, 이번 변동의 원인별 기여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12]

판단

단기 가격 복원과 정상 이익의 재평가는 별도다. 시장의 불안을 부정하거나 그대로 이익 전망에 대입하기보다, 가격결정력과 현금 전환이 실제로 변했는지를 추적한다.



04 / EARNINGS CONCENTRATION

DS의 이익과 전사의 분산효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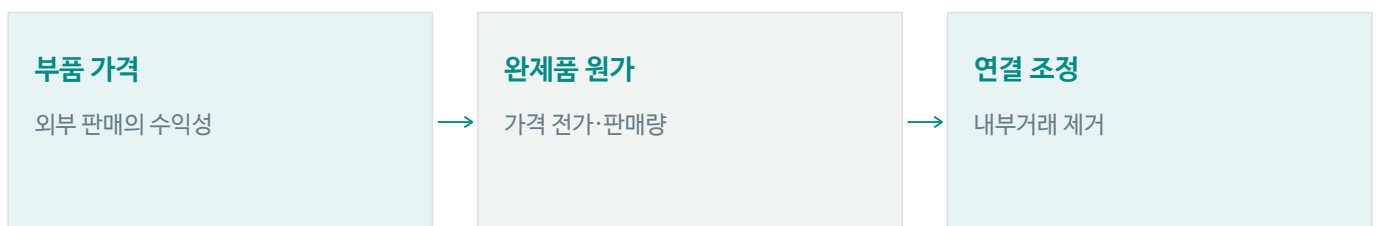
2분기 공개 실적은 이익의 집중도를 보여준다. 이를 3분기 구성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2Q26 · 조원	매출	영업손익	범위
DS	127.5	89.2	메모리·비메모리 포함
DX	48.0	-0.8	모바일·TV·가전 등
SDC	7.5	0.7	디스플레이
Harman	4.6	0.4	전장·오디오

회사 실적 발표 [3] [4]. 부문 매출에는 내부거래가 포함된다. 부문 매출을 더해 연결 매출이나 외부 고객별 매출 비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사업 다각화가 곧 이익의 분산은 아니다

TradeLens 분석 | 서로 다른 사업을 보유하더라도 이익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 주력 제품의 가격과 생산비가 전사 손익의 핵심 변수가 된다. 완제품 매출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이익의 변동을 상쇄할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평가할 것은 각 부문의 매출 합계가 아니라 외부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순수익이다. 내부 공급 확대가 그룹 전체에 자동으로 새로운 이익을 더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부별 판매가격·원가·제품 구성의 변화와 연결 조정을 함께 읽어야 한다.

다음 실적의 핵심

DS 이익의 확대 폭과 DX의 방어 능력을 동시에 확인한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손익은 DS 합계만으로 분리 추정하지 않는다.



05 / MEMORY ECONOMICS

구조적 수요와 가격 사이클은 함께 작동한다

HBM만의 이야기로 축소하지 않고, 메모리의 가격·물량·제품 구성·생산비를 나눈다.

회사는 2분기 서버 중심 수요와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을 실적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반기 서버 DRAM·기업용 SSD·HBM 수요 확대와 일부 모바일·PC 수요 둔화 가능성은 회사 전망이다. [4]

분해할 변수	지속성을 지지하는 조건	약화시키는 조건
판매가격	고객 효용·공급 제약에 기반한 가격 유지	재고 조정·공급 증가·대체품 경쟁
판매량	고객의 실제 가동과 반복 구매	선주문 이후의 취소·인수 지연
제품 구성	고부가 제품의 유료 양산 비중 확대	고부가 매출 증가보다 원가가 빠르게 상승
생산비	수율·공정 생산성·장비 이용 개선	초기 램프업·재작업·감가상각 부담

매출이 같아도 이익의 질은 다를 수 있다

TradeLens 분석 | 단가 상승에 의존한 이익과 같은 가격에서도 수율·원가 개선으로 확보한 이익은 하락 국면에서의 방어력이 다르다. 고부가 제품으로의 이동은 유리할 수 있지만, 고객 승인과 양품 확보에 필요한 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ASP·비트 성장률을 역산해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다.

산업 교차 확인

TSMC의 3분기 달러 매출은 467.2억달러,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이는 산업 수요의 배경이지 삼성전자의 메모리 주문이나 고객별 매출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13]

판단

메모리 수요의 구조적 확대는 긍정적이다. 다만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효과를 영구적인 마진으로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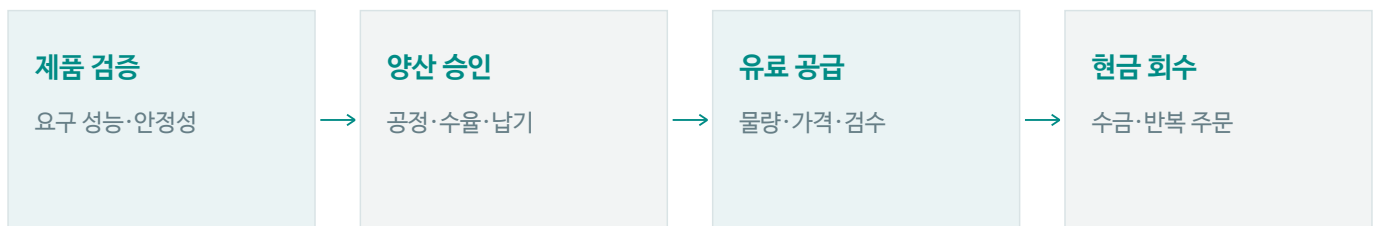


06 / HBM COMMERCIALIZATION

출하·샘플·협약은 서로 다른 상업화 단계다

기술 발표의 숫자보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는 양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본다.

공개된 사건	확인되는 단계	확인되지 않는 내용
HBM4 · 2월 12일 [5]	회사 발표상 상용 양산·출하	모든 고객의 인증·판매량·제품별 마진
HBM4E · 5월 29일 [6]	고객사 샘플 공급	전면 양산·확정 매출·공동 가동 일정
AMD · 3월 18일 [7]	HBM4·DDR5 협력 MOU	확정 구매금액·납기별 청구·이익 보장



수율의 효과는 양품당 비용에서 평가한다

TradeLens 분석 | 적층 단계가 늘거나 공정이 복잡해져도 최종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작동하는 제품이다. 시험 생산의 성공과 경제적인 양산은 다르다. 같은 투입량에서 판매 가능한 물량을 늘리고 재작업을 줄여야 제품 차별화가 이익으로 남는다. 회사의 미공개 수율이나 특정 고객 승인률은 수치화하지 않는다.

MOU는 수요에 접근하는 통로를 보여주지만 공시된 고정 매출과 같지 않다. 반대로 샘플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와 실패·지연의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 분석의 요지다.

판단

HBM4의 상용화는 경쟁력의 근거다. 차세대 제품의 가치는 샘플 수가 아니라 양품 출하·가격·원가·반복 주문의 결합으로 검증한다.



07 / PORTFOLIO TRADE-OFFS

파운드리 개선과 완제품의 방어를 따로 본다

비메모리 손익과 완제품 원가를 메모리 호황의 부수적인 숫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2분기 회사 설명은 파운드리 수요 개선을 언급하면서 성과급 총당 전 수익 개선을 구분했다. MX·네트워크 영업손실은 0.7조 원으로, 회사는 부품 원가 압박을 설명했다. 파운드리 개선을 곧바로 흑자 전환으로 읽지 않는다. [4]

평가 영역	이익을 바꾸는 변수	혼동하지 않을 사항
파운드리	노드별 가동·수율·가격·감가상각	설계 채택·수주와 당기 수익은 다름
모바일·네트워크	제품 구성·원가 전가·마케팅 효율	출하 증가만으로 마진을 확정하지 않음
TV·가전	가격 경쟁·유통 재고·서비스 구성	성수기 판매와 연중 이익은 다름

통합의 경제성과 상쇄효과는 별도다

TradeLens 분석 | 메모리·로직·패키징을 함께 보유하는 것은 제품 설계와 고객 대응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이 통합이 경제적 이점인지 판단하려면 외부 고객의 선택, 양산 단가와 투자 회수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 간 시너지를 가정해 별도의 이익을 더하지 않는다.

기술투자는 투자 회수와 연결한다

9월 삼성전자·ASML 협력 발표는 High-NA EUV와 차세대 포토마스크를 포함한다. 기술 로드맵의 진전과 이미 설치된 생산능력·확정 CAPEX는 같은 정보가 아니다. [8]

판단

메모리의 고수익이 다른 사업의 원가 부담을 가릴 수 있다. 비메모리 손익 개선과 DX의 비용 방어가 동반돼야 이익 기반이 넓어진다.



08 / CASH CON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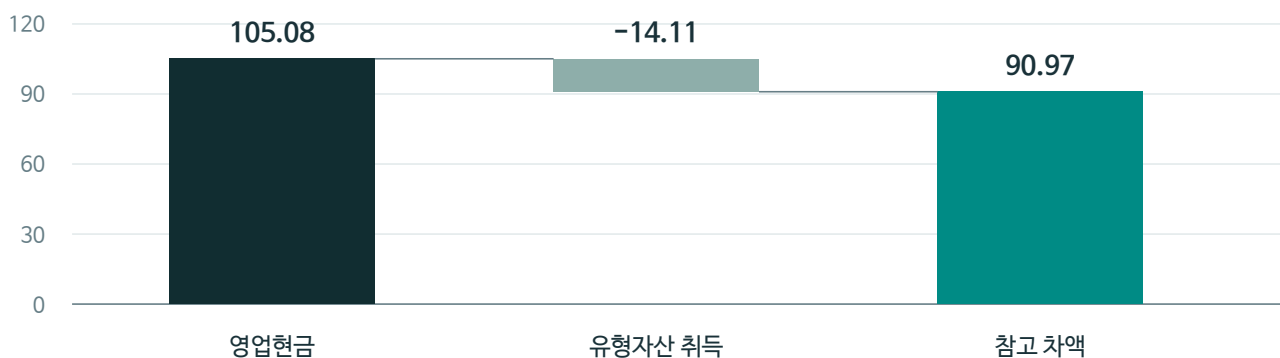
회계이익보다 투자 이후의 현금이 중요하다

영업현금에서 유형자산 취득 현금만 차감한 참고값을 사용한다. 회사 정책 FCF와 다르다.

연결 · 조원	1Q26	2Q26
영업활동 현금흐름	40.27	105.08
유형자산 취득 현금	17.13	14.11
위 두 항목의 차액 ¹	23.14	90.97

2분기 현금 연결 · 참고 계산

조원



출처: 회사 IR [3], PDF 15쪽. ¹ TradeLens 계산. 기간별 분기값이며, 무형자산·인수·기타 투자·주주환원 전 참고 차액이다.

큰 현금 유입을 곧바로 정상 현금흐름으로 보지 않는다

TradeLens 분석 | 현금 회수는 이익의 질을 보강하지만 고객 결제와 세금·지급 시점에 영향을 받는다. 단일 분기의 유입을 연간으로 네 배 하거나, 잠정 영업이익에 같은 현금 전환율을 적용하면 수취·지출의 시차를 놓친다. 반복적인 이익이 반복적인 현금으로 이어지는지를 여러 기간에 걸쳐 평가한다.

주의할 계산

R&D 비용을 영업현금에서 기계적으로 다시 빼지 않는다. 이미 비용·현금흐름에 반영된 항목과 추가 투자 현금을 구분해야 이중 차감을 피할 수 있다.



09 / WORKING CAPITAL

재고와 채권은 성장의 자산이자 회수의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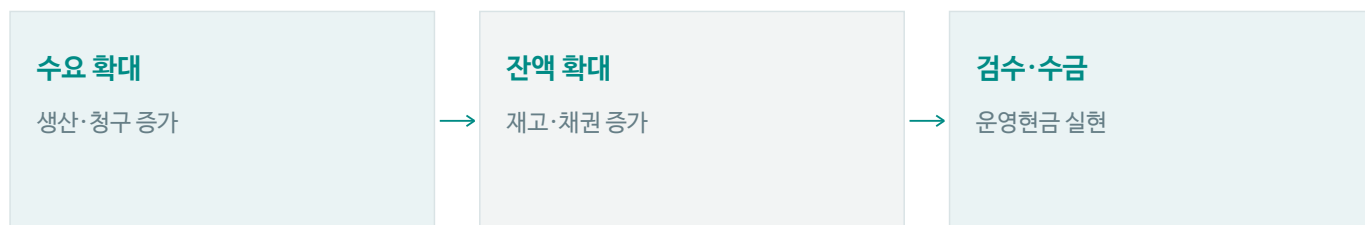
두 시점의 잔액 비교는 운전자본의 규모를 보여줄 뿐, 현금흐름표를 대체하지 않는다.

연결 잔액 · 조원	2026.3.31	2026.6.30	증감 ¹
매출채권	82.2850	96.4090	+14.1240
재고자산	58.2784	71.3891	+13.1107
당기법인세부채	15.2291	30.3031	+15.0740

출처: 회사 IR [3], PDF 14쪽의 역원을 조원으로 변환. ¹ 기말-기초 단순 계산. 세 행을 합산해 운전자본 현금유출로 해석하지 않는다.

잔액의 증가만으로 긍정·부정을 결정하지 않는다

TradeLens 분석 | 매출채권 증가는 성장과 결제 시차를 반영할 수 있으나, 회수가 늦어지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한다. 재고도 생산 확대를 위한 준비인지, 판매 둔화로 쌓인 물량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원재료·재공품·완제품의 구성과 회전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부채의 증가는 이미 인식한 이익과 실제 납부 사이의 시차를 점검하게 한다. 이를 현재 현금 유입의 원인별 기여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또 환율·연결범위·비현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증감액을 현금흐름과 일대일로 연결하지 않는다.

판단

다음 상세 실적에서 현금창출의 지속성을 보려면 이익률뿐 아니라 재고 구성·회수 속도·세금 납부와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



10 / CAPITAL ALLOCATION

주주환원 계획의 규모와 실제 집행은 다르다

회사 발표의 총액·부분 계획·별도 목적을 나누고 중복 합산을 피한다.

회사 발표 · 조원	금액	성격
2026년 주주환원 예상	90 - 110	범위 추정 · 최종 실적·결정에 연동
3분기 관련 현금배당 계획	약 30	정규배당 포함 · 세부안 10월 이사회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 매입	약 15	별도 목적 · 주식 소각과 동일하지 않음

출처: 8월 21일 회사 발표 [9]. 세 금액은 독립적인 세 투자 항목이 아니다. 합계 135 - 155조원으로 표시하거나 모두 배당·소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환원의 재원과 유지투자를 함께 읽는다

회사의 2024 - 2026년 정책은 3년간 FCF의 50% 환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보고서의 분기별 영업현금-유형자산 취득 현금 차액은 그 정책상 FCF와 동일하게 정의된 지표가 아니다. [10]

TradeLens 분석 | 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선언한 금액만이 아니라 재원이 확정되고 실제 지급·소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현금배당은 현금을 이전하고, 소각은 주식 수를 줄이며, 보상용 자기주식은 별도 인센티브 목적을 가진다. 같은 매입이라도 자본배분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확인 시점

회사 발표는 연간 실적 확인 뒤 잔여 환원안을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미래의 집행을 이미 완료된 주주수익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9]

판단

대규모 환원 여력은 긍정적이다. 다만 공정 전환·유지투자·현금 지급 일정을 함께 보아야 자본 효율을 평가할 수 있다.



판매 증가가 단가 하락을 모두 상쇄하지는 않는다

설명용 가정 |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별 원가·ASP·손익을 추정하는 모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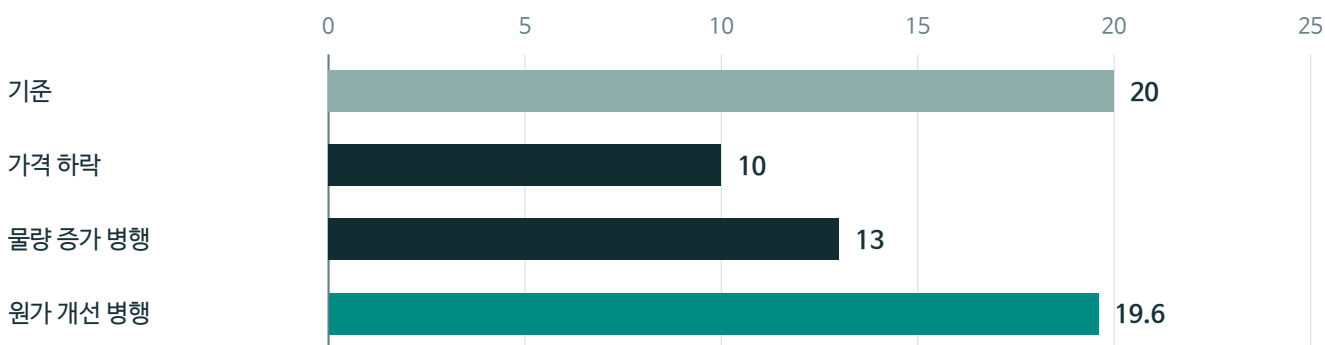
동일 단위 모형

기준 판매가격 $P=100$, 판매량 $Q=1$, 단위 변동비 $C=60$, 고정비 $F=20$. 매출 $=P \times Q$, 영업이익 $=(P-C) \times Q - F$ 로 계산한다. 환율·세금·감가상각 분리·제품 구성 변화는 생략한다.

설명용 시나리오	P / Q / C	매출	영업이익
기준	100 / 1.0 / 60	100	20
가격 10% 하락	90 / 1.0 / 60	90	10
가격 하락·물량 10% 증가	90 / 1.1 / 60	99	13
추가로 단위 변동비 10% 감소	90 / 1.1 / 54	99	19.6

가정별 영업이익 비교

임의 지수 · 실제 전망 아님



모형의 의미 | 매출이 99로 기준에 가까워져도 원가 개선이 없으면 이익은 13에 그친다. 판매량·단가·원가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아지는 국면에서도 수출과 공정 생산성이 이익 방어에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투자까지 포함한 후속 질문

고정비를 낮추거나 단위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큰 자본이 필요하다면, 비용 절감액과 투자 회수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생산량 증가 자체가 자본수익률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12 / CONDITIONAL BUSINESS OUTLOOK

기본 판단은 수요 유지와 마진 정상화의 병존이다

TradeLens의 조건부 사업 전망이다. 실현 확률·이익 추정치·주가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 증거는 기술과 상업적 진전의 지속성을 지지하지만, 높은 연결 이익률의 영구화를 입증하지 않는다. 기본 분석 경로는 고부가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격·비용·경쟁의 조합에 따라 마진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분기의 이익 감소를 확정하는 예측이 아니다.

경로	함께 확인할 조건	기업 경제성의 의미
A · 수요 유지 마진 재조정	유료 출하 유지 / 단가 상승 둔화 / 투자 지속	매출 성장과 이익률 조정이 공존할 수 있음
B · 기술·원가 동반 개선	고부가 양산 확대 / 수율 개선 / 정상 수급	가격 의존도를 낮추는 이익 기반 강화
C · 고객 투자 지연	인수·납기 연기 / 재고 누적 / 지급 지연	매출 인식과 운전자본 회수의 동반 압박
D · 경쟁 공급 확대	대체 공급 인증 / 구매 단가 압박 / 원가 고정	수요가 성장해도 초과 마진은 축소 가능

반증은 주가보다 사업 데이터에서 찾는다

기본 판단을 강화하는 조합은 고객의 실제 인수, 반복 주문, 수율 개선과 현금 회수다. 반대로 상세 실적에서 재고·채권이 매출보다 빠르게 누적되고 고객의 주문 이행이 약해진다면, 단순한 마진 조정이 아니라 수요·회수 위험에 더 무게를 뒀야 한다.

초기 신호와 실적 확인을 구분한다

계약의 취소·인수 지연은 잠재적 위험 신호이고, 매출과 현금흐름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지표다. 선행 신호만으로 손실을 확정하지 않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객의 투자 실행과 공급 경쟁의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해석의 기준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은 동일한 결론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의 방향과 취약성을 판단하며, 현재 가격의 저평가·고평가나 매매시점을 판정하지 않는다.



13 / OUTLOOK & MONITORING

10월 29일에는 이익의 크기보다 구성을 확인한다

예정된 상세 실적 발표에서 사업·현금·자본배분의 연결을 점검한다. [11]

우선 확인	판단을 지지하는 신호	판단을 약화시키는 신호
메모리의 수익 구조	가격·물량·구성의 균형과 원가 개선	가격 효과에 집중·양산 비용 상승
비메모리·DX 손익	파운드리 개선·완제품 원가 방어	메모리 외 사업의 손실 확대
재고·채권·현금	재고 정상화·수금·세금 부담 대응	미사용 재고·회수 지연·현금 전환 약화
설비투자·환원	양산 일정에 맞는 투자·명확한 집행	투자·지급 일정과 현금 유입의 불일치

01

무슨 변화인가

잠정실적의 이익 확대와 주가 조정이 함께 발생했다.
둘은 서로를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02

왜 중요한가

높은 연결 이익률의 지속성은 제품·수율·가격과 투자
조건을 분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

03

누구에게 효과가 생기나

기업은 양산·현금, 주주는 배당·소각을 통해 성과를 얻는다. 전달 시점과 권리는 다르다.

04

무엇을 확인하나

유료 출하에서 재고·수금·투자·주주환원까지, 실적 확대가 반복 가능한지 확인한다.

최종 판단

삼성전자의 메모리 상업화와 이익 확대는 유효한 변화다. 다만 정상 이익을 판단하는 핵심은 기록 경신 자체가 아니라 가격경쟁력·양품 생산비·현금 회수·자본배분의 지속성이다.

분석 기준일 2026.10.16. 3분기는 연결 잠정치, 상세 사업·현금 분석은 2분기 회사 발표를 사용한다. 두 기간을 합성한 제품별 실적은 제시하지 않는다.



14 / SOURCE REGISTER

핵심 판단을 개별 원문에 연결한다

청록색 출처번호·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잠정실적 발표 2026.10.08 · 연결 잠정 매출·영업이익·성장률	원문 열기
02. 삼성전자 Earnings Guidance for Third Quarter 2026 2026.10.08 · 비교표: 2Q26·3Q25 연결 수치	원문 열기
03. 삼성전자 2026년 2분기 실적발표 2026.07.30 · 회사 IR · PDF 13 - 15쪽: 사업부·재무·현금	원문 열기
04. 삼성전자 Second Quarter 2026 Results 2026.07.30 · 사업부 실적·메모리 수요·파운드리·DX 설명	원문 열기
05. 삼성전자 상용 HBM4 양산·출하 발표 2026.02.12 · 회사 발표 · 제품 출하 단계	원문 열기
06. 삼성전자 HBM4E 샘플 공급 발표 2026.05.29 · 회사 발표 · 샘플과 양산의 구분	원문 열기
07. 삼성전자·AMD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 확대 2026.03.18 · MOU · HBM4·DDR5 협력 범위	원문 열기
08. 삼성전자·ASML 차세대 반도체 제조 협력 확대 2026.09.08 · 회사 계획 · High-NA EUV · 포토마스크	원문 열기
09. 삼성전자 2026년 주주환원 계획 2026.08.21 · 환원 예상 범위·이사회 일정·임직원 보상용 매입	원문 열기
10.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2024 - 2026 · 3개년 FCF 기준 환원 정책	원문 열기
11. 삼성전자 IR 행사 — 2026년 10월 일정 2026.10 일정 · 10월 29일 10:00 KST 콘퍼런스콜 예정	원문 열기
12. 뉴스1 외인, 삼성전자 13거래일 만에 순매수 2026.10.16 · 시장 보도 · 15 - 16일 등락·정규장 증가·현물 수급	원문 열기
13. TSMC Third Quarter 2026 Results 2026.10.15 · 동종산업 배경 · 달러 매출·성장률	원문 열기

자료 적용: 회사 발표는 해당 시점의 실적·계획을 구분해 인용했다. 시장 보도는 정규장 가격과 수급에 한정한다. 제품별 미공개 매출·수율·마진을 추정하지 않는다.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계획,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0.16 · 삼성전자 보통주(005930). 시장은 정규장 종료 기준.
자료의 성격	3Q26 연결 잠정치. 상세 사업·재무 분석은 2Q26 회사 실적발표 자료이며, 외부 회계검토 완료 전 작성된 자료의 유의사항을 따른다.
계산 기준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 현금 참고값=CFO-유형자산 취득 현금. 정책상 FCF나 3분기 현금흐름의 추정이 아니다.
설명용 모형	12쪽의 가격·물량·원가·고정비는 임의 가정. 회사 ASP·원가·마진·실적 전망 또는 적정주가 계산이 아니다.
제공 범위	사업구조·수익성·현금흐름·자본배분. 주가 방향·매매시점·목표주가·개인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